

겨울철 도로 위 '블랙 아이스' 대처법

남가주 지역의 도심은 겨울에도 좀처럼 얼음이 얼지 않는다. 하지만 산악지대라면 말이 달라진다. 남가주의 산악지대는 겨울이면 눈도 내리고 얼음도 언다. 그래서 운전 중 블랙아이스를 조심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blog.kumhotire.co.k)에 따르면 '블랙 아이스'는 겨울철 낮에 내린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새에 스며들어, 밤 사이에 도로의 기름, 먼지 등과 섞이면서 얇게 얼어붙는 일종의 '도로 결빙' 현상이다. 도로에 결빙된 모습이 워낙 얇고 투명해서 아스팔트가 그대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검정색 얼음이라는 뜻의 '블랙 아이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블랙 아이스 현상은 주로 온도가 낮고 습기가 많은 도로에 자주 발생한다. 겨울철 새벽 시간대에 터널 출입구와 고가도로, 다리가 접하는 교각지점 등에 자주 생기고,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저수지와 해안도로, 호숫가 주변과 같이 항상 그늘져 있거나 온도차가 큰 곳에도 발생한다.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사망률이 높다.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운전대) 제어가 어렵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가 헛돌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블랙 아이스 대처 방법

그렇다면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겨울철에는 차량을 운행하기에

앞서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도를 체크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차량 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노후된 타이어는 사고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 운전할 때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등 조작성을 급하게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는 자동차의 제동 거리가 길어지므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미끄러짐이나 스핀 현상 유발 등 사고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블랙 아이스 사고는 얼음이 얼 정도로 낮은 온도가 머무는 시간대인 이른 아침이나 밤 늦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밤, 그리고 눈이나 비가 내린 후에는 규정 속도보다 20~50% 감속 운전 해야 안전하다.

블랙 아이스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지만, 헤드라이트 불빛의 비침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다. 도로에 헤드라이트 빛이 반사된다면 블랙 아이스 구간일 확률이 높으니 차량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스티어링 휠을 꼭 붙잡고 조작하지 않는 것이 좋고, 블랙 아이스 구간을 서행하며 지나야 한다. 미끄러짐의 정도가 크다면,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볍게 여러 번 나눠서 밟는 '펄핑 브레이크' 방법으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미끄러진 이후 차가 멈춘 상황이라면, 곧바로 비상등을 켜두고 뒤따라 오는 차량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해야 한다.



▲ 겨울철 도로 위 블랙 아이스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헤드라이트 변색의 원인과 예방법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가 짧아서 꼭 야간이 아니더라도 새벽이나 아침 출근길도 캄캄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서 '자동차의 눈' 헤드라이트 점검이 필요하다. 헤드라이트 변색의 원인과 예방법을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소개했다.

■ 헤드라이트의 역할과 변색의 위험성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헤드라이트는 도로 위 운전자들에게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운전하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종종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변했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변하면 광량이 낮아지고 빛 산란이 발생하여 주행에 방해가 되고 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야 한다.

■ 헤드라이트 백화와 황변, 결로 현상

새 자동차는 헤드라이트 부분이 아주 투명해서 내부가 보일 정도지만 오랜 시간 주행하다 보면 헤드라이트가 변색이 된다. 헤드라이트 내부가 하얀색으로 뿌옇게 변하는 것을 백화 현상, 헤드라이트 표면이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황변 현상이라고 한다.

백화 현상과 헛갈릴 수 있는 현상으로 헤드라이트 결로 현상이 있다. 하얀색으로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백화 현상과 혼동할 수 있는데, 결로는 헤드라이트의 내·외부의 온도차로 생기는 습기가 원인이다. 대부분의 제조사에서는 헤드라이트 내부의 열을 방출하는 홀(통기 홀)을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기를 배출한다.

하지만 이 습기가 하루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면 수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므로 정비를 받는 것이 좋다.

■ 헤드라이트 변색의 원인

그렇다면 헤드라이트는 왜 뿌옇게 변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헤드라이트의 재질과 관련이 있다.



▲ 변색된 헤드라이트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사진=shutterstock

일반적으로 헤드라이트의 재질은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이다. 이 소재는 가볍고 단단하지만 직사광선과 산성비 그리고 열(고온)에 약한 단점이 있다. 소모품이다 보니 계속해서 주행하고, 직사광선과 산성비에 노출되, 부품이 노화되어 백화현상이나 황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헤드라이트를 작동하면, 최대 200°C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런 고온에 플라스틱이 노출되면 '분자량 유기 화합물'이 기화하며 가스가 발생하고 이 가스가 헤드라이트 벽면에 이물질처럼 흡착돼 헤드라이트를 뿌옇게 만든다.

■ 헤드라이트 변색 예방법

주차할 때, 특히 햇빛이 강한 날 장시간 주차할 경우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나 비가 오는 날에는 주행 후 마른 수건으로 헤드라이트 부분을 닦아주어야 한다. 또한 헤드라이트에 투명한 UV 코팅 필름을 붙여주는 방법도 헤드라이트 변색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헤드라이트는 자동차의 눈과 같고, 야간 운전 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품이다. 안전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한다.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12500 E. Slau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